



Received: 2025/01/31
Revised: 2025/02/07
Accepted: 2025/03/20
Published: 2025/03/31

***Corresponding Author:**

Youngill Kwon

Force Analysis Test Evaluation Group, ROK Navy
P.O.Box 501-280, Division of Doctrine Development,
Sindoan-myeon Geryong-si, Chungcheongnam-do,
32800, Republic of Korea
Tel: +82-42-553-7731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과 한국 해군의 대응

Trump 2.0 Policy Predic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ROK Navy

권영일*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예비역 교리연구관

Youngill Kwon*

Doctrine researcher(reserve), Force Analysis Test Evaluation Group, ROK Navy

Abstract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제력, 국방력, 과학기술 위협, 그리고 미국인들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건설하여 중국에 대응하여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고자 할 것이다. 한국 해군의 대응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AI 등 과학기술 도입, 미국 MRO사업과 연계한 함정 건조 및 정비 능력 강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Trump's second-term policy direction is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reats from China's rising economic power, defense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as well as the sense of crisis among Americans. To address these issues, Trump is likely to build strong economic and military power under the banner of "America First" to counter China and usher in a golden age for America. Korean Navy's response should focus on enhancing capabilities to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dopting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I, and improving shipbuilding and maintenance capabilities in conjunction with U.S.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projects.

Keywords

트럼프(Trump), 한국 해군(ROK Navy),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북한(North Korea)

1. 서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현지 시각) 취임식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어 미국의 '황금시대(golden age)'를 열겠다고 선언하였다[1]. 가장 큰 걸림돌인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기치 아래 미국 내 역량을 강화하되 미국 외에서 자국의 부담을 감소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인식하는 위협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대내외의 공통 요소는 바로 우위를 상실하고 위협에 직면한 미국의 경제력이다.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코로나 이후 경제부양책을 지속해 오면서 국방비에 버금가는 막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격차를 벌려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둘째,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부담이다. 중국의 군사력은 지상, 해상, 공중, 핵, 사이버·전자기파, 우주 영역에서 능력을 빠르게 키워 나가고 있다. 2024년 말 미국 국방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육군은 합동 운용 및 화력을 증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해군은 세계 최다의 함정(370척)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제1도련선 외곽에서 Yu Shen급 상륙강습부대와 Shandong 항공모함을 운용하였다. 육군은 2023년 해군이 연안에서 운용했던 항공기들을 공군으로 이관하여 전력을 보강했다. 로켓군은 지속해서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재래식 탄두로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를 타격할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전략우주군을 우주군과 사이버군으로 분

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핵전력은 2030년까지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평가된다[2].

셋째, 과학기술에 대한 도전이다. 다수의 전문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은 앞으로의 전쟁 양상을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한다[3].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전장에서 AI, 무인기와 같은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개전 초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단기간에 무력화한 것은 서방의 IT 부대였다.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 무력화되었을 때에는 Starlink가 이를 대체하여 지휘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전장에서 영상 분석과 안면 인식에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량은 1년 새 10배 증가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AI를 이용한 삶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오픈 소스 대형 언어모델을 개발하는 중국의 AI 연구기업 DeepSeek의 효율성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넷째, 미국인의 자부심과 긍지에 대한 위기의식이다. 초강대국으로서 이어온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라는 전통에 위기감이 들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이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의 증가이다. 또한 마약이 불법으로 유입되어 많은 젊은이가 중독되고 있다. 흑백 인종 간의 갈등, 산불과 허리케인을 포함한 자연재해 등은 미국인의 자부심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위상이 상승하는 반면 미국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취임 전에 미국 동부에 미식별 드론이 다수 출현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은 미국인들의 불안을 자극했다[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과 통제력이 상실한 것처럼 보이거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반감도 국내 여론을 분열시킨 요소이다.

2. 미국의 대응 전략

앞서 언급한 미국이 직면한 심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로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다시 선택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선 과제는 정부 예산의 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트럼프는 원유와 셰일 가스 개발을 통해 미국을 중동과 같은 자원 부족으로

탈바꿈하려고 한다. 저가의 원유 생산 및 판매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리 인하를 도모할 것이다.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던 유럽은 미국의 원유를 수입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인원 감축을 통한 예산 절감과 동시에 정부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방안이 바로 AI의 활용이다. 스타게이트(Stargate) 설립 목적 중 하나는 AI 기반 시설인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것이다[5]. AI를 활용하면서 정부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책임자는 정부 효율부(DOGE)의 수장이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의 선구자이며 X 인수 및 대량 해고를 주도한 일론 머스크(Elon Musk)이다.

둘째,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도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도 AI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미국판 ‘아이언 돔(iron dome)’으로 구체화할 것이다[6]. 미 해군이 건조 예정인 364척의 함정에 한국-일본의 조선산업 역량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AI로 건조 및 수리의 효율성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달과 화성 탐사를 포함한 우주 영역에서의 활동을 늘리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우주군의 역할 확대가 예상된다. 아직 인간 활동이 어려운 화성에 관한 자료수집, 분석과 연구에 AI를 활용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F-35보다 효율적인 무인기 생산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이와 관련한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7].

셋째, 미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것이다. AI를 통한 인건비 감축과 함께 불필요한 노동력을 차단하도록 불법 이민을 통제하는 것이다. 관세를 통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는 것은 마약과 불법 이민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우선주의 행보가 파나마 운하 운영권 환수, 그린란드 매입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미국은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얽매이지 않고 독자 행보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힘과 속도로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많은 저항에 부딪혀 모든 목표가 성공을 거두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위대한 미국이라는 황

금시대를 개척하는 과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트럼프 1기 재임 중 북한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시도한 만큼 2기에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물론, 당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과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제 선정부터 난항이 예상되나, 이는 바로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state)으로 언급하였다[8].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이후에 반복된 발언이다. 트럼프는 취임 무도회에서 주한미군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김정은을 언급하고 안부를 묻는 등 김정은과의 관계를 이용한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을 자신하고 있다[9]. 폭스 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도 1기 재임할 때 북핵 문제 해결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하되, 현실적으로는 북한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스몰 딜(small deal)’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북한 핵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그리고 미국이 진행하는 전술 핵 개발과 한반도 재배치 등이 한국 안보에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연관된 또 다른 이슈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조정이다. 트럼프는 2024년 10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수준의 10배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한미 간 협정 타결을 비난했다[10].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는 1기 재임 중 NATO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 한도인 2%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NATO 회원국은 그 목적을 달성한 상태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취임 전에 다시 NATO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였고 마르크 뤼트(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가 있다. 뤼트의 주장은 유럽의 방위는 NATO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 가능성은 증가하고 그에 따른 한국의 역할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비용 부담과 역할 증대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서명한 한미일 협력 기조가 트

럼프 정부에서 지속될 가능성은 아직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행동은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한발 물러서면서 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유럽 주도의 NATO 역할 강화를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취임식 날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과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는 등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역할이 제약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계에서도 미국 주도의 관계를 설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협력적인 성격이 강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맥락에서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하여 미국은 독자적·독보적인 군사력 증강을 시도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AI 기반 조성 및 활용과 정부 효율성 강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 고도화된 함정을 2054년까지 364척 건조할 것이다[11]. 1조 달러 이상이 요구되는 건조 비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다[12]. 동맹국을 활용해야 할 정도로 중국의 조선산업이 위협적이며 미국 국내 조선산업 능력 확대가 우선순위를 강조한 것이다. 저렴한 불법 이민자들이 제공했던 조선산업 노동력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기반 시설 확보 등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동맹 활용은 더 단기적이며 시급한 방안으로 대두될 수 있다.

4. 한국 해군의 대응 방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북미 간의 스몰 딜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군의 해상기반 3축 체계 발전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 내 혹은 인근 해상에 전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전술핵 운용에 대한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활용하여 한국의 의사를 조율해 나갈 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의 소통 채널을 유지할지 아니면 별도의 채널을 신설할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핵 위협 대응은 지속될 것이고 해군의 역할 또한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SLBM 능력이 고도화

될 가능성에 부가하여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대가로 관련 기술 이전이 우려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AI가 공격작전을 지휘하고 드론이 정찰 후 폭격하는 전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AI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기업의 과학기술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AI에서 경쟁력을 선점한 기업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국 해군은 AI 기반 유·무인복합체계인 Navy Sea Ghost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I, 무인기, 로봇 활용에 대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은 양자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양자 분야의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이 목표로 하는 364척의 함정 건조를 제한된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동맹국의 선박 건조 및 유지 보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일 수 있다. 한국이 플랫폼 건조 및 유지 보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요구 충족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한다면 해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AI 및 로봇을 활용한 건조 및 유지 보수 기술을 확보하여 운용과 수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여 노동력을 절감해 나가야 한다. 미국 내 선거(dock)를 포함한 건조 시설이 완비되더라도 인도-태평양의 광대함(tyranny of distance)을 고려한다면 이동하여 수리하기보다는 한국에서의 수리가 효율적일 것이다.

중동으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량이 감소하고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은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동과의 교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 교통로의 중요성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그린란드 매입 등 북극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만큼 우리도 북극해를 통한 물류 이동 가능성과 자원탐사 및 개발, 선박 건조 및 유지,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더욱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5. 결론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은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

인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반도와 해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안보 환경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은 특히 북핵, AI, MRO, 해상교통로 보호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White House(2025), The Inaugural Address, <https://www.whitehouse.gov/remarks/2025/01/the-inaugural-address/>
- [2] U.S. Department of Defense(2024),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ual Report to Congress, <https://media.defense.gov/2024/Dec/18/2003615520/-1/-1/0/MILITARY-AND-SECURITY-DEVELOPMENTS-INVOLVING-THE-PEOPLES-REPUBLIC-OF-CHINA-2024.PDF>
- [3] Samuel Bendett and David Kirichenko(2025), Battlefield Drones and the Accelerating Autonomous Arms Race in Ukraine, West Point Modern Warfare Institute, <https://mwi.westpoint.edu/battlefield-drones-and-the-accelerating-autonomous-arms-race-in-ukraine/>
- [4] Craig Kafura(2004), American Views of China Hit All-Time Low,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https://globalaffairs.org/research/public-opinion-survey/american-views-china-hit-all-time-low>
- [5] Billy Perrigo(2025), What to Know About 'Stargate,' OpenAI's New Venture Announced by President Trump, Time, <https://time.com/7209167/stargate-openai-donald-trump/>
- [6] White House(2025),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irects the Building of the Iron Dome Missile Defense Shield for America,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1/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directs-the-building-of-the-iron-dome-missile-defense-shield-for-america/>
- [7] Peter Suclu(2024), Elon Musk Criticized The F-35—Called For Armed Drones Instead.,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petersuciu/2024/11/25/elon-musk-criticized-the-f-35-called-for-armed-drones-instead/>
- [8] The Dong-A Ilbo(2025), 'North Korea is a nuclear state,' says Trump, <https://www.donga.com/en/article/all/20250122/5411401/1>
- [9] Choe Sang-Hun(2025), Trump Hints at New Talks With Kim Jong-un. It Might Be Harder This Tim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5/01/24/world/asia/trump-north-korea-nuclear-talks.html>
- [10] 김수빈(2019), 방위비분담금: 트럼프,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 발언의 실체는?, BBC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49834765>
- [11]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25), An Analysis of the

Navy's 2025 Shipbuilding Plan, <https://www.cbo.gov/publication/60732>

[12] Morgan Phillips (2025), Trump threatens to tap allies for military shipbuilding if US can't produce, FOX News, <https://www.foxnews.com/politics/trump-threatens-tap-allies-military-shipbuilding-us-cant-produce?msocid=1e8beced210b649d1164f81320236574>